

물지마 신규사업?

-신규사업 계약직화 철회를 위한 전기분야 투쟁 본격화

지난 12월28일 청량리역에서는 15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사업 전기인력 계약직화 철회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장민 서지본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12월16일 망우역 개통식 지지 투쟁은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며, 공사의 신규사업 외주화-계약직화를 포함한 구조조정 분세 투쟁에 전직종이 함께 나설 것을 호소했다.

전기지부장들은 앞으로 계속 있을 신규사업에 더 이상의 계약직화는 있을 수 없다며, 철도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정규직 충원을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의 구조조정에 맞서, 전기노동자가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투쟁을 해보자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투쟁은 철도공사가 12월16일 개통된 청량리~덕소간 전철에 필요한력을 계약직으로 충원하려하자 촉발되었

다. 서울지역 전기지부장들은 더 이상의 계약직화는 있을 수 없다며, 공사 출범이후 계속된 신규사업 계약직 충원으로, 정규직은 업무가 가중되고, 계약직은 고용불안과 차별 대우로 고통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규사업 정규직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기지부장들은 지급과 같은 추세로 계약직이 늘어난다면, 공사가 분세로 외주화하고 주정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계약직화 철회 투쟁이 장기적으로는 외주화 저지 투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 전기 지부장들은 12월7일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항의방문해 계약직 채용 공고를 막은 바 있으며, 이어 9일 광역본부 잠가동성, 16일 망우역 개통식 지지 투쟁, 21일 서울지역 전기지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동투쟁 결의, 22일 안원모 스타카 부차투쟁 돌입 등을 전개했다.

KTX 여승무원 자회사 저지투쟁 새해를 연다



등을 강화하여 맞서게 되었다.

투쟁에 나서자 신별해고 방침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대하여 불법파견 진정을 내고, 직접고용요구, 임금차취등을 호소하게 되자 회사에서 노골적인 탄압에 나섰다. 철도유동은 2005년 11월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간부 및 대의원,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재계약하려 한 것이다. 철도유동은 승무원들 주수지에 '재계약 가능통보서'를 보내 승무원들을 위축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총이회 노조)은 리본달기 및 집회등으로 저항하는 KTX승무원들에게 "하기되지 않은 집회를 저재할 것"을 요구하는등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노동조합은 '소속노조 변경및 희생자 구호에 대한 투표'를 벌여 조합원 88퍼센트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철도노조 가입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12월 2일, 마침내 서울,부산 승무원 400여명이 철도산업노조 철도유동본부(구 총이회 노조)를 탈퇴하고 철도노조에 가입하였다.

철도유동과 결별, 승무기자회사 설립방침에 맞서 투쟁중

05년말 철도유동은 KTX 승무원 위탁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철도유동의 사업포기선언은 철도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철도유동으로는 KTX 승무원들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승무원론 자회사를 설립하여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을 위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KTX승무원들은 새마을호 승무원과 함께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12월 28일과 29일 서울역에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KTX·새마을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뱃지를 착용하는등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게 철도노동자들의 지지와 연조를 기대한다.



철도공사 모르쇠 -외조모도 경조비 지급대상

2004년 특별단체 협약 36조 에 의하면 외조모도 경조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아직도 특단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후생비 지원 2항에는 경조비지급 시방의 경우 '사망 : 본인(기본급의 3배),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기본급의 1배)'으로 체결하였다.

조합 김태영 법규차장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외조부모(외증조부모)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 및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일 경우 공사에서 경조금을 지급해야"며 "법에는 수급권 상실시호가 3년"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 사규인 후생복지규정시행세칙 제16조 3항 경조비수급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할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상실된다.'에 의거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상실되어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조합은 공사에서는 직계존속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외조모부의 경우 경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 준비 중이다.

참고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란?

본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말한다.

- 특별단체협약 (2003)

- 제36조【후생비지원】공사는 직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후생비를 지원한다.
 ① 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증비축 소주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1. 완전희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평균임금의 3배
 2.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평균임금의 3배
 3.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평균임금의 2배
 ②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조비를 지급한다.
 1. 사망 - 본인(기본급의 3배),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기본급의 1배)
 2. 결혼 - 본인(20만원지급), 자녀(20만원 지급)
 3. 회갑 또는 칠순 - 본인 및 배우자 부모(20만원지급)

67명 해고자 원직복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연재찬 (대전지관차) 94해고자
 유병국 (부산지관차) 6.28해고자
 천환규 (부산지관차) 6.28해고자
 김갑수 (청량리 차장) 6.28해고자
 김갑수 (구로열차) 6.28해고자
 김규현 (서울지관차) 6.28해고자
 김낙현 (수원지관차) 6.28해고자
 김상노 (서울지관차) 6.28해고자
 김상현 (서울지관차) 6.28해고자
 김승식 (서울정비창) 6.28해고자
 김영준 (영등포지관차) 6.28해고자
 김윤덕 (서울차량) 6.28해고자
 이흥석 (부산정비창) 공투본해고자
 김홍식 (서울지관차) 6.28해고자
 김기태 (부정정비창) 공투본해고자
 김운수 (구로열차) 6.28해고자
 김상문 (대전정비창) 2.25해고자

김홍준 (구로차량) 6.28해고자
 나창수 (천안지관차) 2.25해고자
 박태만 (천안지관차) 2.25해고자
 문홍문 (분당차량) 6.28해고자
 고창식 (부산지관차) 2.25해고자
 김재하 (부산지관차) 2.25해고자
 박인호 (청량리지관차) 6.28해고자
 임순평 (대구차량) 2.25해고자
 김도환 (서울차량) 2.25해고자
 박태철 (서울정비창) 6.28해고자
 김용욱 (분당차량) 2.25해고자
 박영준 (서울정비창) 6.28해고자
 김재길 (청량리지관차) 2.25해고자
 백영준 (분당차량) 6.28해고자
 서희조 (서울차량) 2.25해고자
 백남희 (서울열차) 6.28해고자
 엄길홍 (서울차량) 2.25해고자

송종건 (청량리지관차) 6.28해고자
 이권현 (수색차량) 2.25해고자
 이병은 (서울차량) 2.25해고자
 유기천 (구로열차) 6.28해고자
 임도창 (성북지관차) 2.25해고자
 이명규 (서울지관차) 6.28해고자
 남기명 (대전지관차) 6.28해고자
 양원표 (대전정비창) 6.28해고자
 이순호 (서울차량) 6.28해고자
 이종렬 (청량리지관차) 6.28해고자
 유연상 (천안지관차) 6.28해고자
 정용진 (수색차량) 6.28해고자
 임병연 (천안전기) 6.28해고자
 정재하 (서울지관차) 6.28해고자
 전상문 (대전정비창) 6.28해고자
 조동환 (구로차량) 6.28해고자
 조상수 (민우제어) 6.28해고자

최상규 (대전차량) 6.28해고자
 조세관 (서울시설) 6.28해고자
 조연호 (서울시설) 6.28해고자
 배영대 (제천차량) 6.28해고자
 지영근 (구로승무) 6.28해고자
 서재열 (제천시설) 6.28해고자
 최승수 (서울열차) 6.28해고자
 송병경 (영주지관차) 6.28해고자
 한태근 (서울열차) 6.28해고자
 한태영 (서울지관차) 6.28해고자
 진중희 (광주차량) 6.28해고자
 홍덕표 (용산차량) 6.28해고자
 전갑재 (광주지관차) 6.28해고자
 홍선서 (서울열차) 6.28해고자
 황효열 (수원시설) 6.28해고자
 박인희 (광주차량) 6.28해고자
 전영호 (홍매) 노조활동 부당해고

정기단협 승리!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신년특보

■ 발행인 | 김영훈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 (우)140-013 ■ (02)3 780-5980

김영훈 위원장 신년사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회람의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 동지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화를 기원 드립니다. 105년 국유철도를 마감하고 공기업으로 체제전환원년이었던 지난 2005년은 희망보다는 실망이,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더 많았던 날들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철도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 속에 출범한 철도공사는 구조개혁 당시 정부의 선전처럼 '정미 및 미래'는 고사하고 한해를 마감한 현재 각종 지표와 징후들은 절망적이며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철도개혁 바로잡읍시다

정부의 철도투자책임 명확화를 통한 철도산업 발전이라는 철도구조개혁 취지를 살리는 기본전제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2004년도 내에 확정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2005년도 마저 날기도 말았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철도현장은 지난 한 해 자구노력이라는 각종 구조조정 계획으로 노사관계는 물론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이득권보장이라는 서비스 제고에도 악순환을 감내해야 하였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터져 나온 이른바 유관비리 관련 문제도 그 본질을 적자를 타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뒀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한다는 잘못된 의식에 있으며, 늘어나는 신규사업에도 인력충원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인력감축 중심의 단편적인 경영개선계획은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약속이행이 남긴 자리를 철도산업의 주체인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채워나가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본말이 전도된 철도개혁을 바로잡고 진정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투쟁으로 지난 한해를 달려왔습니다.

조그마한 기록권을 버리고 더 큰 하나가 됩시다

우리의 이념적 지표인 철도공공성 강화의 정당성은 이미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것은 공공성 강화로서만 가능한 일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입니다. 우리 운동의 방향인 사회연대성 강화는 노동운동이 보다 이데올로기의 연대를 통해 운동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노선이 됩니다. 장애우와 노약자들과 같은 소외된 계층과의 소외된 지역민들과의 연대는 사회적 차원의 봉사가 아닌 노동운동의 기본본성을 실현하는 책무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조직적 과제인 산별노조 건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되고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전제입니다. 조그마한 기록권을 과감히 버림으로서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는 전략적 방편입니다.

이제 올해에는 이러한 3대 전략노선을 보다 일상적이고 완강하게 펼쳐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집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노동운동이 절망에 빠진 민중들에게 희망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 철도노동자들의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단편한 정기단협 투쟁을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총단결 투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연대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고 대의명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승리를 확정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 내부의 총 단결을 실현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장기단협승리하여 2006년을 기쁘게 보냈읍시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2월로 확정된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에 2년5천 전 조합원이 하나되는 투쟁, 완강한 투쟁으로 지난날의 한계와 오류를 뛰어넘는 승리하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다. 우리가 정취해야 할 목표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될수록 단결은 공고화될 것이고 투쟁의 방도를 함께 고민하고 결의할 때 투쟁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 앞에 당당하였던 철도노동자들의 지력으로 정기단협 투쟁의 포문을 열고 승리하는 2006년! 희망의 2006년을 기쁘게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병술년 새해 용산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영훈 드림



